

KIA 유망주 박민·김현수 “내년 시즌 새 전력 되겠다”

“내년 시즌 KIA의 새 전력이 되겠습니다.”

KIA 타이거즈가 시작 원정을 떠났던 지난 주말 챔피언스필드에 불이 밝혀졌다. 11·12일 광주에서는 KIA와 상무야구단의 퓨처스리그 ‘서머리그’가 진행됐다. 팬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진행된 경기에서 두 팀은 1승씩 주고 받았다.

11일에는 0-3으로 뒤지고 있던 9회말 KIA가 주효상의 끝내기 안타로 역전승을 거뒀고, 12일에는 KIA가 선취점을 만들었지만 팀의 두 번째 투수 윤중현이 흔들리면서 5-8 역전패를 기록했다.

이번 시리즈에 출전하지 않았지만 상무 유니폼을 입고 ‘안방’을 찾은 반가운 손님이 있었다. 타율 0.320·출루율 0.413의 내야수 박민과 올 시즌 7승으로 남부리그 다승 1위인 투수 김현수가 그 주인공이다.

박민은 2020 신인드래프트에서 2차 1라운드 지명을 받은 유망주, 김현수는 안치홍의 FA 보상 선수로 KIA가 선택한 원석이다. 두 선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 시즌에도 발전된 모습으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공격’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박민은 “타율 3할 쯤 보자는 목표로 입대했고, 지난해(0.303)에 이어 올해도 3할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느끼는 게 느껴진다. KIA에 있을 때보다 타율, 출루율이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올 시즌 중반까지 함께 상무에서 야구를 했던 최원준이 박민에게는 좋은 스승이 됐다.

박민은 “원준이 형이 많이 도와줬다. 군대 처음 갔을 때 방으로 불러 맛있는 것 주기도 하고 먹을 것 많이 챙겨줬다(웃음)”며 “아구도 많이 알려줬다. 멘탈, 연습 방법, 플레이 하나하나 많이 배웠

상무 유니폼 입고 챔스필드 찾아

내야수 박민 “삼진 줄고 볼넷 늘어”

타율 0.320·출루율 0.413 맹활약

투수 김현수 “구속 올라 커브 통해”

남부리그 시즌 7승으로 다승 1위

다. 원준이 형이 이야기해준 것을 토대로 코스를 설정하면서 경기 하나 삼진이 줄고, 볼넷이 늘었다. 방향이 원준이 형과 코치님들에게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수비에서도 보고 배울 게 많다. LG 내야수 구본혁이 동기이고, 후임으로는 KT 심우준도 있다.

김현수는 ‘구속’을 목표로 했고 그 결과를 얻었다.

김현수는 “평균 구속이 많이 올랐다. 전반기에는 144~145km가 나왔다. 구속이 오르면 변화구 승부하면 타자들이 쉽게 속는다”며 “상무에서 제일 많이 바뀐 건 공격적인 피칭이다. 자연스럽게 포볼이 줄고, 공격적으로 승부 하니 타자들이 어려워하는 느낌을 받았다. 워낙 상무가 많이 이기는 팀이고, 선수들이 잘하다 보니까 마음 편하게 던지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 감독, 코치님이 기회를 주셔서 많은 경기에 나가 발전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현수는 상무에서 자신의 주무기인 ‘커브’도 업그레이드 시켰다.

김현수는 “커브를 롯데 있을 때 이용훈 코치님한테 배웠다. KIA와서 서재용 코치님 이야기도 들

고, 내 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다. 데이터 분석 하면서 회전을 효율적으로 돌려 손목을 고정하면서 커브가 더 좋아졌다. 또 커브 승부하면서 타자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졌다”며 “이대환 코치님 조언으로 카운트 잡을 때 느리게 던졌다가, 전력으로 던지기도 한다. 변화구가 다 빠르다 보니까 커브 스피드를 조절하면서 두 개의 커브를 던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KIA에서 함께 야구를 했던 만큼 서로의 달라진 모습이 눈에 띈다.

김현수는 “민이한테도 이야기했는데, KIA 있을 때는 여유가 없어 보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봐왔는데 저학년 때부터 시합을 뒀던 선수였다. 프로에서 여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작년 말부터 갑자기 너무 잘하는 게 보였다”며 “수비도 여유롭게 하고 타석에서도 당연히 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열심히 한 걸 지켜봤고, 진짜 모습이 바뀌었다”고 언급했다.

박민은 “협수형이 힘이 예쁘고, 공 예쁘게 던지고 커브 좋은 투수라는 걸 알았는데 상무에서 공 끝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싸움하는 것도 많이 좋아졌다. 커브가 더 좋아진 것 같다”며 “투구 템포도 수비수 입장에서 편하다”고 이야기했다.

남은 복무 기간 두 선수는 각각 ‘웨이트’와 ‘유지’를 키워드로 더 성장해서 돌아오겠다는 각오다.

박민은 “웨이트를 많이 해서 힘을 더 키워서 나가고 싶다. KIA에 있을 때보다 더 좋아졌지만 나가기 전까지 최대한 더 해야겠다. 타격에서 많이 보여주고 싶다. 수비 좋고, 출루율 좋고, 간간히 장타도 치는 선수로 어필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현수는 “운동은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다(웃음). 운동 외적으로 배울 게 많다. 간절하게 기



상무에서 군복무 중인 KIA 내야수 박민(왼쪽)과 투수 김현수가 11·12일 광주에서 진행된 퓨처스리그 경기를 위해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솔을 배우려고 했고 ‘이런 상황에 무엇을 던져야 하는지’, ‘어떻게 승부해야 하는지’ 등 원준이 형이랑 야수 형들한테도 많이 물어봤다”며 “시즌을 풀로 던져본 적이 없는데 한 시즌을 선발로 뛰면서 기량을

유지하는 게 힘든 것이라는 걸 알았다. 지금의 모습 1군에서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꾸준하게 계속 TV에서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전남 육상 간판 2명 세계선수권 나간다

광주시청 고승환 육상 200m

장흥군청 김장우 세단뛰기

높이뛰기 우상혁은 23일 결선

지역 육상 간판스타인 고승환과 김장우가 개인 처음으로 세계육상선수권에 출전한다.

세계육상연맹이 현지시각으로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2023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선수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세계육상연맹이 지난 11일 공개한 명단에는 난민 팀을 포함한 202개 팀, 2187명의 이름이 있다.

한국에서는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27·용인시청)과 200m 고승환(25·광주시청), 세단뛰기 김장우(23·장흥군청), 여자 포환던지기 정유선(25·안산시청) 등 4명이 세계선수권에 출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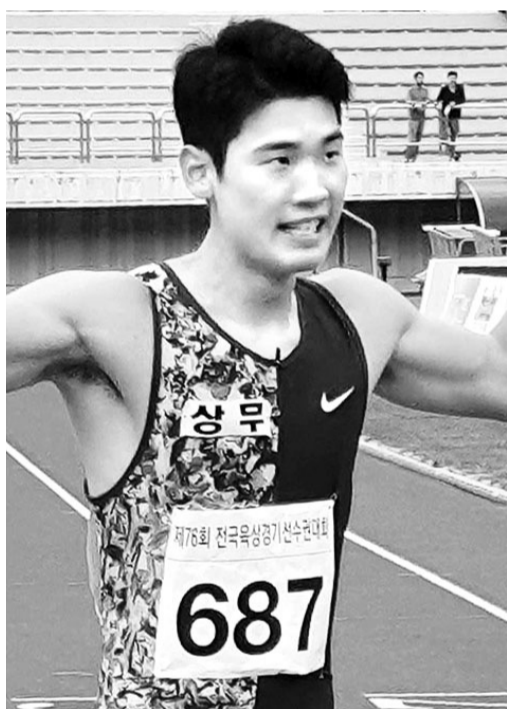
우상혁은 기존 기록(2m32)을 통과해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얻었고, 다른 3명은 기존 기록을 넘어 서지는 못했지만 랭킹 포인트로 출전권을 획득했다.

세계육상선수권 메달을 보유한 한국 선수는 경보 김현섭(2011년 대구 대회 3위)과 우상혁, 두 명뿐이다.

대구 대회에서 김현섭은 6위로 레이스를 마쳤지만, 도핑 재검사에서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된 선수가 대거 나오면서 3위로 올라섰다.

우상혁은 2022년 유진 대회에서 한국 최고인 2위'를 차지하고,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시상대에 올라 메달을 받았다.

부다페스트에서 시상대에 오르면 한국 육상 최초로 '2회 연속 세계선수권 메달 획득'의 새 이정표를 세운다.



광주시청 고승환



장흥군청 김장우

하지만, 우상혁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본다.

2022 유진 세계선수권 성과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우상혁은 ‘금메달’에 대한 미련도 버리지 못했다.

우상혁은 2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공개 훈련을 한 뒤 “정말 준비를 잘했다”며 “지난해 유진 대회에서 얻지 못한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이번에 꼭 찾아오겠다. 기분 좋고, 정말 자신 있다”고 밝혔다.

체중 67kg을 유지하고, 세계선수권에서는 2kg을 더 줄일 계획인 그는 “이 정도 참았으면 당연히 금메달을 따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체중 관리를 잘했다. 훈련 성과도 좋았다”고 말했다.

우상혁은 20일 오후 5시 35분 예선, 23일 오전

2시 55분에 결선을 치른다.

고승환과 김장우, 정유선은 개인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무대에 오른다.

개인 최고 기록이 20초51인 고승환은 한국시각으로 23일 오후 7시 50분에 열리는 200m 예선에 출전한다. 200m 예선에는 총 62명이 된다.

“2022 아시아선수권 3위 김장우(개인 최고 16m78)는 20일 새벽 2시 35분에 시작하는 남자 세단뛰기 예선에서 37명과 경쟁한다.

한국 최초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 금메달리스트 정유선(개인 최고 17m12)이 출전하는 여자 포환던지기 예선(38명 출전)은 26일 오후 5시 25분에 열린다.

/김대성 기자 bigkim@연합뉴스

U-19 남자배구 세계선수권 동메달 쾌거

미국 3-1로 꺾고 30년만에 메달

19세 이하(U-19) 남자 배구대표팀이 30년 만에 국제배구연맹(FIVB) U-19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다.

김장빈 감독이 이끄는 U-19 대표팀은 12일(한국시간) 아르헨티나 산후안에서 열린 미국과 3~4위 결정전에서 세트 점수 3-1(25-18 25-19 21-25 25-23)로 승리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11일 이란에 세트 점수 1-3으로 패해 어렵게 결승 진출에 실패한 한국은 이날 강팀 미국을 만나 1세트부터 우월한 경기를 펼쳤다.

14-12에서 미를 블로커 장은석(속초고)이 중앙 속공과 블로킹에 성공했고, 이후 상대 공격 범실로 점수 차를 벌렸다.

1세트를 가져온 한국은 2세트에서도 흐름을 이어갔다. 세트 중반 집중력 있는 플레이로 점수 차를 벌리며 세트스코어 2-0을 만들었다.

한국은 3세트를 내주며 추격을 허용하는 듯했으

나, 4세트를 점진 끝에 가져오며 승리했다.

한국은 4세트 23-21에서 아웃사이드 히터 이우진(경복체고)이 불안하게 서브 리시브를 했지만, 직접 강타를 때려 득점하면서 승기를 잡았다.

이후 연속 득점을 허용한 한국은 24-23으로 쫓기다가 미국의 서브 범실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주장 윤서진(수성고)은 17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고, 이우진이 15점, 장은석이 11점으로 활약했다.

윤서진은 경기 후 FIVB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U-19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지 매우 오래됐는데, 이렇게 성과를 내 감격스럽다”라고 밝혔다. 리베로 강승일(대한항공)은 대회 베스트 리시버상을 수상했다.

한국이 이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건 동메달을 차지한 1993년 이스탄불 대회 이후 30년 만이다. 당시 한국은 최태웅(현 현대캐피탈 감독), 석진욱(전 OK금융그룹 감독), 장병철(전 한국전력 감독) 등이 활약하며 메달을 땀다.

/연합뉴스

신유빈-임종훈, WTT 리우 혼합복식 우승

한국 탁구의 대표 혼합복식 듀오인 신유빈(대한항공)-임종훈(한국거래소) 조(4위)가 9개월 만에 국제대회 우승을 함작했다.

신유빈과 임종훈은 지난 12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캔턴더 리우데자네이루 2023 대회 7일째 혼합복식 결승에서 마리아 사오-알바로 로블레스조(8위·스페인)를 3-1(11-9 12-10 8-11 11-4)로 완파했다.

이로써 신유빈-임종훈 조는 지난해 11월 열린 캔턴더 노바고리차 이후 9개월 만에 국제대회 혼합복식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신유빈-임종훈 조는 올해 들어서는 앞서 WTT 무대에서 3차례 결승에 올라 모두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3월 캔턴더 도하와 4월 스타 캔턴더 방콕에서는 중국 조에 잇따라 패했고, 8월 캔턴더 튀니스에서는 대만 조에 졌다.

신유빈-임종훈 조는 한국 탁구가 2024 파리 올림픽 메달을 겨냥해 전략적으로 키워온 조합이다. 신유빈은 이번 대회에도 전지희와 짝(1위)을 이뤄 여자복식에 출격, 결승에 올라 2관왕에 도전한다. 신유빈-전지희 조는 결승에서 최효주(한국마사회)-김나영(포스코인터내셔널) 조(40위)와 우승을 다툰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콘크리트 유토피아
- 2관 콘크리트 유토피아
- 3관 바다 탐험대 옥토포브 어보브 앤 비욘드 : 육지 넘어 하늘까지, 인시디어스: 빨간 문
- 4관 밀수
- 5관 비공식작전
- 6관 콘크리트 유토피아
- 9관 밀수
- 7관 싸이커블 엘리멘탈, 비공식작전, 여름날 우리
- 8관 싸이커블 더 문,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인시디어스: 빨간 문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파랑새

기희공연 포시즌 미디어아트 뮤지컬

8.24(목) - 26(토)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일시 : 2023-08-24(목)-25(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5

CHUNG TRIO CONCERT

GAC 재계관 시리즈 - 포시즌 「정리트리오 콘서트」

일시 : 2023-08-26(토) 17: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5